

사설

이광재 전 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근 당내 경선을 통해 엄기영, 최문순 예비후보를 각각 자기 당의 도지사 후보로 확정짓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들 외에도 민주노동당 배연길, 무소속 황학수·백창기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후보 등록일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5명이 모두 본선 후보자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으며, 무소속 예비후보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후보자가 확정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연일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흠집내거나, 자기 당의 후보를 선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각 후보자들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원도지사는 우리 지역을 포함한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자리이며, 도지사의 역량에 따라 지역발전의 속도와 지역복지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이런 무관심은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인 주민들은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어느 후보가 과연 강원도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언론보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각종 후보자 정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대부분 강원도 전체의 발전을 테마로 한 굵직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공약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후보자들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도지사 보궐선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4.27 도지사 보궐선거 관심 갖자

우리 지역 주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선거가 본격화되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으나,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후보자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무관심의 원인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먹고 살기가 바쁜 데 정치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하소연할 수도 있겠으나, 먹고 살기가 힘들수록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도지사를 비롯한 각종 선출직들이 주민 개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워주지는 않지만, 누가 당선되느냐에

자연의 변화로 일어난 재앙(天災; 천재)과 자신이 불행(禍)을 불러드린 재앙(人災)이 있다. 결코 일본인 이야기가 아니요 나의 일이 아닌가.

인도네시아에서 몇 해 전에 쓰나미(地震海溢; tsu:해일 nami:지진)로 인하여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재난 보다 더 큰 재난이다. 게다가 원전1~6호기까지 영향을 주어 일본 전역에 공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국가들도 걱정이다. 물 건너 불 구경 아니기에 걱정함과 동시에 물불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제하기 위하여 59개 국 중 첫 번째로 우리 긴급구조대가 도착 구조 활동을 버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성금과 더불어 구호금품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대피하는 요령과 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확인 보완시설을 완벽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언제(지금 바로) 어디로(위치에서) 가장 높은 대피장소 어떻게(행동으로) 무엇(간이 구급약 식량)을 대비 할 것인가에 해답은 각자에 알맞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사항은 기후변동징후조짐(氣候變動徵候兆朕; 기후변동 언짢은 낱새, 일이 미리 변화하는 현상 봄)을 일기 예보 특보를 귀여겨듣고 보고 지혜롭게 대처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첫째 지진(地震; 지각변동이 급격히 변화 상하 사방으로 움직이는 진동현상)과 함께 파도가 높을 때 또는 바다 휘 바람소리(海嘯; 해소) 들쭉 화산폭발(火山爆發) 또는 해저 핵실험 셋째 천둥번개 낙뢰(落雷) 빛

금강칼럼

김종식
객원 논설위원



당황하지 말고 평소대로 행동하자

재태풍(颶風) 돌풍(突風) 등이 발생하면 쓰나미 징후라는 것을 예측 명심할 일이다.

당황하지 말고 평소 생각했던 대로 행동하면 화는 면할 것이다.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은 위급한 중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처사하면 헤아날 방편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만에 하나 방사선 물질에 대한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항만 공항 접경지대 검색 공기 측정 수산물 농산물 검출 식수원 바닷물 수질, 날아온 황사검사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계기관을 보강과 함께 국민의식을 고취(鼓吹; 의견이나 사상을 주장 널리 알림) 철저 하고도 완벽한 대비를 일상생활화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후 귀가하여 목욕한다.우천시에 비옷을 착용하고 우산을 사용 비를 맞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 이상이 있을 때 전문의를 진단을 받을 것.

‘인류는 판도라 박스(pandora’s box; 여러 가지 재앙의 씨 상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류가 생존한 동안

이 재앙의 상자는 존속한다. 순간순간 이상자를 존중하여야 비로소 생존한다. ‘따라서 그린경제성장(green economics growth; 화석에너지원을 녹색으로 대체,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국민경제의 기본적인 지표가 시간적 경과와 함께 상승 지라서 커진다는 말)에 정부와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 행하여야 된다. 세심(細心; 자세히 생각하고 주의)은 재난을 예방하고 방심은 화를 부른다는 지혜를 얻었으니 우리 서로 나눠 가집시다.

나는 일본인을 이렇게 보았다. ‘생사의 갈림 길에서도 질서 유지, 보는 사람을 감동시켜’ ‘아비규환(阿鼻叫喚; 지옥 고통을 못 참아 울부짖는 소리) 속에서도 이성 잃지 않아, 보는 사람은 다시 놀라’ ‘일본은 Phoenix(피닉스; 불사조), 다시 보이는 일본인’ ‘잿더미에서 일어난 세계 제3 경제 대국 되었고’ ‘일본인은 다시 한번 희망의 촛불 켜 일본을 복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를 위하여 가지(茄子: 가지)에서 아

는 지혜를 우리 서로 나누시다.

가지의 원산지는 인도로 추측되며 세계 각처에 150여종이 있고, 엽액(葉腋; 잎은 담자색 남색(藍色) 백색(白色) 합판화(合瓣花; 씨와 꽃)열매는 자흑색(紫黑色) 녹색(綠色) 백색(白色) 높이는 60-100cm이다. 가지는 식용으로, 성질은 차다 지혈과 소종작용을 해독 통증 고혈압 동맥경화 약 증방지 한 식물로서 연로자 고혈압 증세엔 삶은 물과 나물로 먹으면 좋다.

가지의 효능 25중 먼저 7가지를 알아보자. 1)입안 험거나 헛비늘 돌거나 잇몸이 부어 아플 때-날가지 껍질이나 마른가지 껍질을 태워 가루를 꿀에 개어 바름 2)설사 이질 계절병-가지뿌리를 태워 재를 만든 후 석류 껍질가루와 1:1혼합 따끈한 술로 복용 3)자궁음호돌출(子宮下垂 陰戶突出; 자궁 음부가장 자리가 불룩함)가지 뿌리를 태워 재를 참기름에 개어 음도삽입 4)혈림 동통(血淋 疼痛; 피 진물 아픔)대량 가지 잎을 볶아서 가루를 식전우수로 아침은 온수에 소금타서, 저녁은 온수에 솔로 복용 5)동창(凍瘡; 얼어서 된 종기)엔 잎 줄기 뿌리 가지를 삶아 자주 상처를 씻는다. 전체를 삶아 상처를 씻는다. 6)각기종 통양(脚氣 腫痛; 정강이 종기 앓다)뿌리를 삶아 즙을 바름 7)충치(蟲齒; 이에 벌레) 신선한 가지와 뿌리를 찌어 즙을 내어 바르거나 태워 바르거나 齒孔(치공; 이에 구멍)에 바름. 자연식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희망적 이고 치병의 길이며 명의의 상봉이요 행복이다.

◇편집국에서

○...고성군수협 사업포기로 난항을 겪던 러시아 냉동명태 직거래 사업이 지난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죽왕수협을 통해 이뤄져, 8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수입물량은 당초계획한 500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06톤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수입한 냉동명태는

지역주민들에게 식판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영하 40~50℃에서 초저온으로 급냉한 것이며, 영하 30℃이하에서 냉동된 것보다 육질과 색상이 자연 상태로 유지된 제품이라고 한다. 판매에 나선 죽왕수협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릴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